



다시, 청와대 앞 투쟁을 시작하며

.....

해고자 원직복직 외침은 계속돼!

발전노조는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를 들고 다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월 15일 부터 시작한 1인 시위는 오늘로 10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발전노조 해고자와 집행부가 함께 진행하는 청와대 앞 해고자 복직 요구는 매일 아침 8시에 시작하여 저녁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공기업 중에서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곳, 발전회사. 이것이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시작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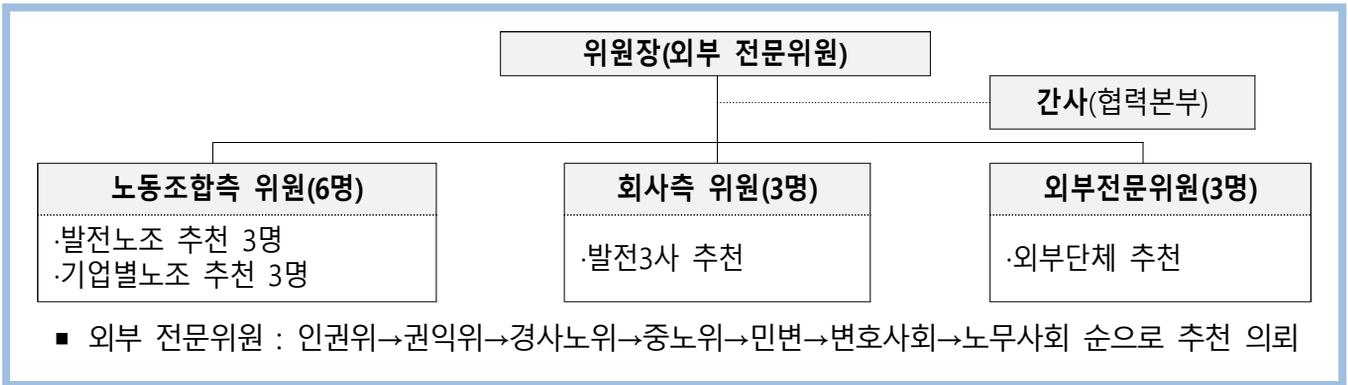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코레일을 포함해서 그동안 복직하지 못했던 공기업 해고자들이 속속 복직을 합의했다. 어려움을 겪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까지 복직에 합의했다. 그러나 발전 회사만이 전문위원의 복직 권고안을 무시하면서 해고자복직에 대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중에서 마지막 남은 발전 해고자 복직,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투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이유다.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논의 경과

- 2019.2.28. 산업통상자원부(전산과)·발전3사·협력본부 회의에서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고자 복직에 대해 검토할 것”을 합의
- 2019.6.10.부터 10.24.까지 5차례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구성 준비회의>를 개최하였고, 제5차 준비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방안을 결정



- 2020.5.12. 제4차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대상 해고자를 5명(조준성, 남성화, 이호동, 윤유식, 전승욱)으로, 회의 명칭을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로 확정. 아울러 <민변>의 외부전문위원 참여를 확인
- 2020.6.15. 제5차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에서 장종오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부발전 해고자 김동성을 복직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서부발전 당사자 3명은 이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2020.6.30. 제6차 회의부터 2020.9.23. 제12차 회의까지 7차례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020.9.23. 외부전문위원들이 권고(안)을 제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외부위원 권고(안) - 핵심내용

1.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조준성, 전승욱, 남성화를 2020. 12. 31.까지 각 복직시킨다.
2.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는 이호동, 윤유식을 2020. 11. 30.까지 각 복직시킨다.

발전노조는 해고자 복직 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복직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양보 또한 감내했다. 그러나 외부위원의 권고안이 나오고 특별위원회가 종료되었음에도 남동/동서발전은 해고자 복직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

남동/동서발전은 최종 권고안에 근거하여 해고자 복직 시행하라.

공기업인 발전회사의 복직이행 거부,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